

SPORTS ‘최강팀이라 했는데’...KIA, 위기관리 ‘시험대’

2025년 4월 7일 월요일



11경기 소화 후 리그 최하위권에 머물러
마운드 부진·내야진 줄부상 등 극복해야

올 시즌 ‘절대 1강’으로 꼽혔던 KIA 타이거즈가 초반부터 휘청이고 있다. 마운드 부진과 함께 내야진 줄부상으로 이범호 감독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련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KIA는 올 시즌 시작 전 최강팀으로 꼽혔다. 마운드에서는 ‘에이스’ 제임스 네일과 2년 연속 계약에 성공했고, 메이저리그 출신 파이어볼러 아담 울러를 영입했다. 여기에 대투수 양현종을 비롯한 토종 선수들도 견재했다. 불펜진 역시 지난해와 크게 다를 것 없는 전력이었다. 장현식이 떠난 빈자리는 세이브왕 출신 조상우가 합류하며 공백을 메웠다.

타선 또한 마찬가지다. 최연소 30홈런-30도루를 달성한 ‘슈퍼스타’ 김도영을 비롯해 2024시즌 통합 우승을 이끌었던 선수들이 자리를 유지했다. 외국인 자리는 ‘MLB 88홈런’ 거포 매트릭 위즈덤을 영입하며 전력을 끌어올렸다.

그러나 정규리그에 돌입하자 KIA의 성적은 예상과는 크게 달랐다.

KIA는 6일 경기 전 기준 4승 7패 승률 0.364로 리그 9위에 위치해 있다. ‘다펜인 챔피언’의 성격이 띠고 보이기 어려운 수준이다.

마운드에서 선발진은 제 몫을 하고 있다. ‘에이스’ 제임스 네일이 3경기 18이닝 8피안타 12탈삼진 무실

점으로 리그 최정상급 활약을 펼치는 중이다. 외인 투수 아담 울러 역시 2경기 11이닝 9피안타 11탈삼진 6실점(5자책)으로 무난한 성적표를 기록했다.

양현종은 3경기 16이닝 평균자책점 5.06으로 흔들리고 있지만, 팀 선발진 평균자책점은 2.75로 10개 구단 중 가장 낮다.

문제는 불펜진이다. 6일 경기 전까지 KIA 불펜의 평균자책점은 7.78이다. 10개 구단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필승조로 활약했던 전상현은 4경기 3이닝 평균자책점 15.00으로 부진하고 있다. 이외에 이준영(5경기 3.2이닝 평균자책점 7.36), 황동하(6경기 8이닝 평균자책점 9.00), 광도규(5경기 2이닝 평균자책점 18.00), 임기영(2경기 2이닝 평균자책점 27.00) 등이 모두 컨디션 난조를 보이고 있다. 마무리 정해영도 4경기 4이닝 평균자책점 6.75로 기대 이하의 성적이다.

결국 팀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타선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타선 또한 녹록치 않다. 시즌 시작부터 내야진이 줄부상을 당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김도영이 부상으로 1군 엔트리에서 탈락했다. 개막전인 지난 22일 NC다이노



양현종

스와 경기 도중 허벅지 통증을 호소했고, MRI 검사를 한 결과 왼쪽 햄스트링 손상 소견을 받았다. 지난 3일 재검진한 결과 상태가 나아져 타격과 수비 등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이어서는 지난달 26일 박찬호가 무릎 염좌 소견으로 엔트리에서 탈락했다.

박찬호는 전날 키움과의 경기에서 2루 도루 과정



김선빈

중 무릎 통증을 호소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다. 그는 10일간의 휴식을 한 뒤 이달 5일 1군에 복귀했다. 그 대신 ‘2024 한국시리즈 MVP’ 김선빈이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김선빈은 왼쪽 종아리에 미세 손상이 있는 상태다. 이범호 감독은 그를 완벽하게 회복시킨 뒤 팀에 합류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내야 퍼즐 한 조각이 맞춰지면 다른 조각이



김도영

빠져나가는 모양새다. 김도영은 회복 마무리 단계에 있어 4월 중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선빈의 경우 정확한 복귀 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 마운드 부진에 더해 내야진 부상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범호 감독이 이 위기를 딛고 반동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체고, 전국대항 체육대회서 ‘메달 잔치’

금 18·은 14·동 25개 종합 5위 쾌거
양궁 박주혁·역도 김제량 ‘3관왕’

광주체육고등학교가 ‘제39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에서 총 57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광주체고는 지난 3~5일 대구 일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 13개 종목·31개 종별에 199명(선수 165·감독교사 10·코치 24)의 선수단이 참가해 금메달 18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25개 등 총 57개의 메달을 수확하며 종합 5위를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제38회 대회(금 14·은 15·동 28·종합 7위) 보다 두 단계 높은 순위다. 이로써 광주체고는 올해 목표로 했던 종합 7위를 훨씬 뛰어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체고는 이번 대회 다양한 종목에서 활약을 이터져 나왔다. 종목별로 역도(금 5·은 1), 양궁(금 3·은 2·동 2), 레슬링(금 3·은 1·동 7), 사격(금 2·은 2), 육상 도약(금 2·은 1), 육상 단거리(은 5·동 4), 유도(금 1·동 5), 태권도(금 1·동 2), 근대3종(금 1·동 1), 펜싱(은 2·동 2), 복싱(동 1), 체조(동 1) 등이 메달을 쏟아냈다.

특히 양궁 박주혁(2년)과 역도 김제량(2년)은 이번 대회에서 각각 3관왕을 달성하며 광주체고의 호성적을 견인했다.

박주혁은 남고부 90m에서 321점을 쏘 금메달을 따냈다. 이어 70m(330점 5위)에서는 메달 획득에 실패했지만 50m에서 338점으로 동메달, 30m에서 354점으로 은메달을 추가했다.



광주체고 양궁선수단이 ‘제39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에서 금 3·은 2·동 2개를 획득, 종합 5위를 차지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체고

이로써 박주혁은 거리별 합산 점수로 순위를 매기는 개인전에서 총 1343점을 기록, 두 번째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또 배정원(3년)·심유한(2년)·김종현(1년)과 함께 남고부 단체전에서 총 3971점을 기록해 세 번째 금메달 차지, 3관왕에 올랐다.

박주혁의 활약을 앞세운 광주체고 양궁은 종목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역도에서는 김제량이 여고부 +87kg급에 출전해 인상 92kg, 용상 120kg을 들어 올리며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제량은 합계에서도 212kg으로 1위를 차지하며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역도 황성민(3년)과 사격 김우준(1년)은 2관왕에 올랐다. 황성민은 남고부 73kg급에서 인상 116kg 1위, 용상 138kg 2위, 합계 254kg 1위를 기록했다.

김우준은 남고부 공기권총 개인전 결선에서

236.1점을 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기에 조은준(2년)·박지민·김다훈(이상 3년)과 나선 공기권총 단체전에서도 함께 1707점으로 금메달을 따냈다.

육상 높이뛰기 윤준호(3년)와 세단뛰기 신은상(3년), 근대3종 남고 개인전 최지웅(2년), 유도 무제한급 신민성(3년), 레슬링 자유형 57kg급 박인성(3년), 자유형 97kg급 이재혁(3년), 그레코로만형 55kg급 신중훈(3년), 태권도 라이트헤비급 최진우(2년)도 금메달을 수확하며 맹활약했다.

엄길훈 광주체고 교장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발휘하며 지역과 학교의 명예를 드높여준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활약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아쉬운 수비’ KIA, LG에 1-5 패

올려, 6이닝 4피안타 4실점
2회말 실책에 승부 기울어

KIA 타이거즈가 다시 연패의 길로 접어들었다. KIA는 6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Bank KBO리그 LG트윈스와의 경기에서 1-5로 패배했다. 앞서 4일 LG에게 2-8 패배를 당했던 KIA는 이날 2연패를 기록, 4승 8패 승률 0.333으로 리그 9위에 머물렀다.

KIA는 이날 타선을 박찬호(유격수)-이우성(좌익수)-나성범(우익수)-최형우(지명타자)-위즈덤(1루수)-변우혁(3루수)-김규성(2루수)-김태균(포수)-박정우(중견수)으로 짰다.

선발 투수로는 아담 울러가 나섰다. 총 96개의 공을 던진 울러는 6이닝 4피안타 4탈삼진 4실점(3자책)으로 역투했다.

울러는 1회말 상대 선투타자를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이어 신민재에게 2루타를 내줬지만, 후속타

자 두 명을 범타로 처리하며 무실점에 성공했다.

2회말에는 두 타자 연속 뜬공을 기록한 뒤 상대 박동원에게 안타를 맞았다. 이후 구본혁을 몸에 맞는 볼로, 박해민을 볼넷으로 출루시키면서 위기를 맞았다. 2사 만루 상황. 홍창기의 안타에 더해 좌익수 포구 실책까지 나오면서 경기는 0-3이 됐다. 울러는 3회말 뜬공 2개로 삼진으로 삼자범퇴 이닝을 만든 뒤 4회말 또다시 실점했다. 안타 1개와 볼넷 2개를 내주며 만들어진 1사 만루. 상대 홍창기의 희생플라이로 1점을 헌납했다. 이후에는 5회말 뜬공 2개와 삼진, 6회말 범타 2개와 삼진으로 각각 세 타석 만에 이닝을 막았다.

KIA는 7회초 첫 득점에 성공했다. 선투타자 나성범이 좌중간에 떨어지는 2루타를 때려냈다. 후속타자 두 명 아웃 이후에는 변우혁이 우중간을 가르는 적시타를 터뜨렸다. 그러나 7회말 상대에게 1점을 내주면서 경기는 1-5가 됐다.

결국 KIA는 9회까지 추가 득점을 올리지 못하면서 그대로 고개를 숙였다. 송하중 기자 hajong2@

이정후, 3안타·타율도 3할대... 경기 MVP 선정

2루타 두 방에 2득점 팀 6연승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뛰는 외야수 이정후(26)가 2루타 2개를 포함한 3안타를 터뜨리며 3할대 타율에 진입했다.

샌프란시스코는 6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5 MLB 정규시즌 시애틀 매리너스와 홈 경기에서 4-1로 이겼다.

3번 타자 증견수로 선발 출전한 이정후는 4타수 3안타에 2루타 2개, 2득점, 도루 1개 등 만점 활약을 펼쳤다.

이정후가 한 경기에서 안타 3개를 친 건 빅리그 진출 첫해인 지난해 5월 8일 플로리다 로키스와의

경기 이래 두 번째다.

최근 6경기 연속 안타와 7경기 연속 출루 행진을 이어간 이정후는 28타수 9안타, 타율 0.321, 장타율 0.500, 출루율 0.387을 기록했다.

2루타는 올해에만 5개를 날려 지난 시즌 4개를 이미 넘어섰고, 도루도 3개를 기록해 지난 시즌 2개보다 많아졌다.

이정후의 지난 시즌 성적은 타율 0.262(145타수 38안타), 장타율 0.331, 출루율 0.310, 홈런 2개, 8타점이었다.

올해 홈런은 아직 없고, 타점은 3개를 생산했다. 경기 끝난 뒤 MLB 홈페이지는 이 경기 최우수 선수(Player of the game)로 이정후를 선정했다.

슬리터 샌프란시스코는 최근 6연승을 기록하며 7승 1패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2위를 달리고 있다. 1위는 9승 1패의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다. 연합뉴스

PSG, 프랑스 리그1 ‘4연패+13번째 우승’

양제에 1-0 승리...23승 5무 ‘조기 우승 확정’

한국 축구대표팀의 공격수 이강인(24)이 활약하는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파리 생제르맹(PSG)이 정규리그 조기 우승을 확정하며 4연패이자 통산 13번째 챔피언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PSG는 6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양제에 2024-2025 리그1 28라운드 홈 경기에서 후반 10분 터진 데지레 두에의 득점을 끝까지 지켜내 1-0으로 이겼다.

개막 28경기째 무패 행진(23승 5무)을 이어간 PSG는 승점 74를 쌓아 이날 브레스트에 1-2로 패한 2위 AS모나코(승점 50)와의 승점 차를 24로

벌렸다.

정규리그 종료까지 6경기를 남긴 상황에서 PSG는 잔여 경기 결과에 상관 없이 조기 우승을 확정, 정규리그 4연패(2021-2022, 2022-2023, 2023-2024, 2024-2025시즌)를 달성했다.

더불어 리그1 역대 최다 우승팀인 PSG는 이 기록을 13번째로 늘렸다.

정규리그 우승으로 PSG는 지난 1월 프랑스 슈퍼컵(트로페 데 샹피옹)에서 정상에 오른 데 이어 이번 시즌 2개의 트로피를 품었다.

PSG는 2024-2025 프랑스리그(쿠프 드 프랑스)

결승에 올라가 있고, 2024-2025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선 8강에 진출한 데다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 출전도 앞두고 더 많은 우승 트로피를 노리고 있다.

비기기간 해도 조기 우승을 확정하는 이날 경기에서 이강인은 아쉽게 결장했다.

이강인은 3월 20일 오만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B조 7차전에서 후반 35분 발목을 다쳤다.

PSG로 복귀해 회복에 집중한 이강인은 최근 팀 훈련에 복귀했지만 이날 경기에는 선수 보호 차원에서 결장했다.

소속팀이 정규리그에서 조기 우승을 확정하면서 이강인은 PSG 유니폼을 입고 통산 5번째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연합뉴스



6일 경기에서 3루를 홈치는 이정후.

연합뉴스